



사단법인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가 주관한 메이크업 경연 대회의 최종 선발자들이 다음 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사단법인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대형 오디션의 파이널이 이번 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릴 제 4회 메이크업 아시아 서울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몇 달 전 수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들 중 예선을 거쳐 올라온 20 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결선을 겨루는 화려한 무대이다. 이들에 걸쳐 두 번의 경선을 통해 최종 6 명의 결승 진출자를 선정하며, 이 중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오세희 회장과의 인터뷰이다...

MakeUp in...™: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는 노동부 산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국가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희 회장: 메이크업 국가자격시험은 메이크업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관장하는 이 국가 자격증은 연 4회 시행됩니다. 많은 수의 응시자가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학원과 학교에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 두 차례에 걸친 시험을 모두 통과 해야 합니다. 첫 결과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총 20,000여명의 수험생이 필기에 응시해서 13,800명이 합격했습니다. 또한 총 10,400명이 실기에 응시하여 4,939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협회는 또한 보건복지부의 위생검사를 대비하여 뷰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법정 공중위생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OH Se-Hee

MakeUp in...™: 자격증을 획득한 4,943명의 학생들의 진로는 어찌 되는지요?

OH Se-Hee: 대부분의 학생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 국.내외의 뷰티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MakeUp in...™: 이제는 협회 자체의 오디션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금번 콘래드 호텔의 메이크업인 아시아 트레이드 쇼에서 열릴 경연대회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OH Se-Hee: 경연대회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 나라의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이크업 디렉터가 되었다 가정하고 모델에 광고 메이크업을 시연 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1920 년 유행했던 "플래퍼룩(Flapper Look)"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1920 년 "톰보이(Tomboy)"나 말괄량이를 상징하는 플래퍼룩은 화려한 보석장식, 깃털장식, 종 모양의 클로슈 모자, 루즈한 실루엣, 짧은 머리, 미니 스커트, 검은 눈화장, 진하고 작은 입술 등이 대표 이미지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선은 팬톤(Pantone)에서 제시한 트렌드 컬러를 매치시키며 글리터나 깃털 등의 소품을 활용한 패션 메이크업을 주제로 합니다.

MakeUp in...™: 다음주 콘래드 호텔에서의 메이크업인 아시아에서 열릴 메이크업 경연대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OH Se-Hee: 총 20 명의 참가자가 10 명씩 2 개조로 나뉘어 2 시간씩 1 라운드 경연에 임하게 됩니다. 이 중 두 번째 라운드를 위해 10 명을 선정합니다. 최종 결선에는 6 명이 올라가서 겨루게 됩니다.